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이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미치는 영향

임미혜*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Mihye Lim*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Joong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D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 간호대학생 294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설문조사하였고,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72점,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3.90점, 인간중심간호 역량은 5점 만점에 4.01점이었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에 비해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인간중심간호 역량 수준이 높았으며, 인간중심간호 역량은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과 순 상관관계에 있었다.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학년임을 확인하였으며($F=20.103, p<.000$), 변인들의 설명력은 33%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대인관계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인간중심간호 역량, 전공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nducted on 294 nursing students from September 1st to 25th 2019. The mean scor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3.72,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3.90 and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was 4.01. Nursing students with high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had higher level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than students with low degre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wer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grade which explained 33%. The programs that develo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re necessary for college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promote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Key Words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ajor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rsing Student,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환경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명연장으로 치료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대상자 중심

으로 질 높은 전문간호와 개개인에 개별화되고 차별화된 인간중심간호가 대두되고 있다[1]. 인간중심간호는 모든 인간은 개인 존재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 개별적 가치와 특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의료

*Corresponding Author : Mihye Lim(12veronica@joongbu.ac.kr)

제공자와 대상자 사이의 치료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대상자를 존중하며 개인의 선호, 요구, 가치에 대한 존중과 의료진과 대상자와 상호작용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는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이다[2].

인간중심간호는 대상자의 신념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대상자의 간호에 대한 의사결정 시 대상자를 참여시키고 간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체적 간호중재가 이루어져[3], 인간중심간호를 받은 간호대상자들은 통증 감소, 신체적 기능 향상, 안전과 안위 증가 등으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특히 중환자실과 같은 중증도가 높은 영역에서 가족들의 간호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4]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도 높아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5]. 인간중심간호는 대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대상자와의 상호관계가 강조되며 인본적이고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간호사들은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의사결정 및 간호를 제공하고 대상자와의 좋은 관계 및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6]. 이를 위해 간호사들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 전문적 유능감과 신념, 대인관계능력 및 비판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우선되어야 한다[7].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탐색하고 이해하며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다[8]. 간호사는 다양한 건강요구를 가진 대상자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다른 직종의 의료진들과도 상호협력 해야 하는 간호업무 특성까지 고려하면 대인관계능력은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은 대인관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졸업 후 1년 미만의 신규 간호사들의 주요 이직의 원인으로도 작용되고 있다. 간호대학생들 또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인관계능력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9].

비판적 사고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 혹은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사고이며[10], 비판적 사고성향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용하는 개인적인 성향을 의미한다[11]. 비판적 사고를 하는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시 스스로에

대한 자율성을 유지하며 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대상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11], 현대의 간호환경에 간호사들이 근거중심 실무 및 환자중심의 간호에 중요한 기본 요인이 되고 있다.

미래의 간호사로 성장할 간호대학생들도 학부시기부터 전문적 지식과 정서적 측면이 통합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12]. 간호사들이 대인관계능력 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중심간호 역량이 향상된 결과를 보이고[13], 대인관계능력은 단기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학습에 의해 습득되므로[8], 간호대학생들이 학부과정에서부터 대인관계능력 함양을 통해 인간중심간호간호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판적 사고는 간호대학생들은 간호핵심역량으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직업적 가치관과 태도를 확립하고,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아[14],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인간중심간호 수행을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15,16], 중환자실[4,5]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수준을 확인하고 대인관계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과 인간중심간호 역량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과 인간중심간호 역량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과 인간중심간호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넷째,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의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일부터 2019년 9월 25일까지 자료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변수 10개로 산정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172명이 권고되어[17] 탈락률을 고려하여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00명의 대상자 중 응답이 불완전한 6부를 제외한 29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 참여 중 자율적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연구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1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도구는 지적열정,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을 측정하는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on[19]의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7$ 이었다

2.3.2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Guernsey[19]이 개발하고 Moon[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등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이었고 Moon[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 이었다

2.3.3 인간중심간호 역량

인간중심간호 역량은 Suhonen[20] 등이 개발하고 Park[6]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임상적 상황, 개인적 삶의 상황, 의사결정통제 영역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중심간호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Schonen[21]이 개발할 당시의 Cronbach's $\alpha=.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 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및 인간중심간호 역량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및 인간중심간호 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으며,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및 인간중심간호 역량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79.9%, 남학생 20.1%로 여학생이 많았으며, 1학년 29.3%, 2학년 25.2%, 3학년 24.5%, 4학년 21.1%이었다. 종교는 없는 학생이 63.6%로 없는 학생보다 많았다. 가족 중 입원경험이 있는 학생이 84.4%로, 없는 학생인 15.6%보다 많았으며,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47.3%로 없는 학생인 52.7%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공선택 동기는 적성에 맞아서(51.7%), 취업이 잘되어서(22.1%),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21.1%), 성적에 맞추어서(2.7%) 순으로 많았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68.7%, 보통 26.9%, 불만족 4.4%이었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불만족인 학생에 비해 비판적 사고성향($F=10.070$, $p<0.001$), 대인관계능력

(F=11.494, p<0.001) 및 인간중심간호 역량(F=4.2694, p=0.015)은 높았다. 인간중심간호 역량 수준은 2학년에 비해 1학년과 4학년이 높았다(F=3.927, p=0.009).

3.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및 인간중심간호 역량 정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과 인간중심간호 역량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72(±0.38)점,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90(±0.56)점, 인간중심간호 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4.01(±0.53)이었다.

Table 2. Degre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 Variable | Mean±SD | Range |
|---------------------------------|-----------|-------|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3.72±0.38 | 3-5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3.90±0.56 | 1-5 |
|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 4.01±0.53 | 2-5 |

(N=294)

Table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94)

| Variable | Categories | n | %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 |
|---|------------------------------|-----|------|-------------------------------|----------------|----------------------------|----------------|---------------------------------|-----------------------|
| | | | | Mean±SD | t or F (p) | Mean±SD | t or F (p) | Mean±SD | t or F (p) |
| Gender | Male | 59 | 20.1 | 3.75±0.46 | 0.701 | 3.95±0.47 | 0.764 | 3.89±0.56 | -1.808 |
| | Female | 235 | 79.9 | 3.72±0.37 | (.484) | 3.59±0.58 | (.446) | 4.03±0.51 | (.074) |
| Academic grade | 1st ^a | 86 | 29.3 | 3.78±0.39 | 1.121 (.341) | 3.99±0.60 | 1.181 (.317) | 4.10±0.45 | 3.927 (.009) b<a,d |
| | 2nd ^b | 74 | 25.2 | 3.70±0.34 | | 3.87±0.65 | | 3.84±0.65 | |
| | 3rd ^c | 72 | 24.5 | 3.67±0.37 | | 3.83±0.48 | | 3.99±0.50 | |
| | 4th ^d | 62 | 21.1 | 3.43±0.64 | | 3.91±0.46 | | 4.09±0.43 | |
| Religion | Yes | 107 | 36.4 | 3.72±0.35 | 0.041 (.967) | 3.87±0.59 | -0.824 (.410) | 3.96±0.51 | -1.204 (.230) |
| | No | 187 | 63.6 | 3.72±0.39 | | 3.92±0.54 | | 4.03±0.53 | |
| Experience of family's hospital admission | Yes | 248 | 84.4 | 3.72±0.38 | -0.351 (.725) | 3.90±0.57 | -0.146 (.884) | 4.02±0.48 | 0.830 (.407) |
| | No | 46 | 15.6 | 3.74±0.38 | | 3.92±0.48 | | 3.95±0.73 | |
|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Yes | 139 | 47.3 | 3.68±0.36 | -1.821 (.070) | 3.86±0.483 | -1.212 (.233) | 4.01±0.486 | 1.524 (.879) |
| | No | 155 | 52.7 | 3.76±0.40 | | 3.94±0.627 | | 4.00±0.566 | |
| Motivation of entrance | Aptitude ^a | 152 | 51.7 | 3.78±0.38 | 3.3117 (.016) | 4.40±0.57 | 2.691 (.031) | 4.07±0.56 | 1.703 (.149) |
| | Other's opinion ^b | 62 | 21.1 | 3.69±0.40 | | 3.77±0.64 | | 3.97±0.45 | |
| | Job ^c | 65 | 22.1 | 3.62±0.34 | | 3.82±0.45 | | 3.88±0.47 | |
| | Grades(mark) ^c | 8 | 2.7 | 3.68±0.34 | | 3.65±0.41 | | 3.95±0.39 | |
| | Volunteer ^d | 7 | 2.4 | 3.93±0.54 | | 4.11±0.52 | | 4.17±0.67 | |
| Satisfaction with major | Dissatisfaction ^a | 13 | 4.4 | 3.52±0.40 | 10.070 (<.001) | 3.48±0.60 | 11.494 (<.001) | 3.72±0.41 | 4.268 (.015) |
| | Moderate ^b | 79 | 26.9 | 3.59±0.38 | | 3.72±0.48 | | 3.91±0.05 | |
| | Satisfaction ^c | 202 | 68.7 | 3.72±0.36 | a<c | 4.00±0.56 | a<c | 4.06±0.03 | a<c |

3.3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및 인간중심간호 역량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과 인간중심간호 역량과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인

간중심간호 역량은 비판적 사고성향(r=.439, p<.001), 대인관계능력(r=.370 p<.001)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냈고, 비판적 사고성향은 대인관계능력(r=.447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3. Correlation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N=294)

| Variable | a | b | c |
|--|---------------------|---------------------|---|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 | 1 | |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b | .447 ($<.001$) | 1 | |
|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c | .439 ($<.001$) | .370 ($<.001$) | 1 |

3.4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영향 요인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간중심간호 역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간중심간호 역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과 일반적 특성의 학년,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독립변수 중 학년(1학년=0, 2학년=1, 3학년=2, 4학년=3), 전공만족도는 가변수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잔차정규성은 Dubin-Watson 통계량 1.793로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검증에서도 공차한계도 .181-.774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291-5.507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Table 4와 같이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학년이었으며 ($F=20.103$, $p<.000$)이었으며 수정계수 설명력은 33%이었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N=294)

| Factor | B | S.E. | β | t | p |
|-------------------------------|---|------|---------|--------|------|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494 | .069 | .392 | 7.128 | .000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192 | .047 | .226 | 4.096 | .000 |
| Grade 2 | -.151 | .063 | -.137 | -2.388 | .018 |
| | Adj.R ² =.330 F= 20.103 (p<.001) | | | |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인간중심간호 역량 정도와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72점으로 간호대학생들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Kim[21]의 연구의 3.78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전공에 대해 만족한 학생이 전공에 불만족인 학생에 비해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14]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다는 것과 같은 결과이며,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향상 시 전공만족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3.90점으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Yang[22]의 연구인 3.74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im과 Yi[23]연구에서의 3.5점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대인관계 경험이 많으면 대인관계능력이 높고 간호사들도 간호대학생들보다 대상자들과 접촉 기회가 많아 대인관계능력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것으로, Chae의 연구[24]에서도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대상자를 접하며 치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간호대학생보다 대인관계능력 수준이 낮은 결과를 보인 것과 같은 의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1학년의 대인관계수준이 가장 높았고,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대인관계능력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에서 환자, 보호자, 보건의료전문가들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해야하며, 임상실습 시 교내에서의 학습과 임상실습에서의 경험 차이, 모호한 역할, 간호에 대한 이론적 지식 부족 등으로 자신감 저하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반영한 것[25] 이라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 임상에서 경험할 어려움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9]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함양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간호 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4.01점으로, Park[6]의 3.83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1학년과 4학년이 4.1점으로 2학년에 3.8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선행연구[6]에서는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학년 간 인간중심간호 역량 수준 비교가 불가하나, 인간중심간호는 대상자들과 치료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대상자와 상호작용하며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지식적인 면과 정서적인 측면이 반영된 통합적 교육과 경험을 통해 향상되며[12,13], 간호사들의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교육수준에 따라 석사학위 이상의 간호사가 학사나 전문학사 간호사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4], 교육기회가 많은 4학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간호전공에 대한 교육기회가 적은 1학년의 수준이 높고 2학년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 교과 및 비교과 과정 등 교육과정을 반영한 추가 연구를 통해 학년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전공에 대해 만족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 불만족인 학생에 비해 인간중심간호 역량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전공만족도에 따라 인간중심간호 역량 수준의 차이가 없었던 Park[6]의 연구와는 대조되는 결과이나, 간호대학생들은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지식과 직업적 가치관과 태도를 익히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26]을 반영하여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의 인간중심간호역량 수준도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은 인간중심간호 역량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간중심간호 역량 영향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학년이었으며 이중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설명력은 33%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상의 근거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임상수행능력이 높아[27].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 함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판적 사고는 간호대학생들이 학부과정 중 성취해야 할 핵심간호역량[18]으로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해 간호교육에서 토론식이나 문제중심학습, 시뮬레이션실습, 협동학습 등의 학습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협동학습, 플립드러닝, 시뮬레이션실습 교육에 대한 비판적 사고 함양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현재까지 주입식 강의도 많고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를 위한 암기 위주의 학습법이 많아[28,29], 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질문법, 성찰적 글쓰기, 사례연구 등[14]과 같은 다양한 교수법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비판적 사고가 단기간의 교육보다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함양되므로,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해서는 창의적 교수법 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교육 성향 및 비판적 사고에 대한 관심 부족과 같은 교수자적 요인, 교수자와 학생간의 권력관계 등 부정적 영향 요인[14]까지 고려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대인관계능력 또한 인간중심간호 역량의 영향요인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인간중심간호 역량 향상 프로그램 후 간호사들의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된 결과를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13].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하며,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도 잘하게 된다[22]. 의사소통은 대인관계능력의 기본 요소로서 의사소통술이 좋을수록 대인관계가 좋고 의사소통술 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된다[30,31]. 또한 대인관계는 개인의 성격, 심리상태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8],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술 뿐만아니라 개인 특성 등 다양한 측면이 반영된 대인관계능력 함양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졸업 후 임상에서의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중심간호 역량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간중심간호가 노인이나 중환자, 응급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의료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다양한 간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하나, 대부분의 연구가 요양병원, 중환자실, 응급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대해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 간호대학생 294명으로, 자료 수집은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25일 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Pearson's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72점,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3.90점, 인간중심간호 역량은 5점 만점에 4.01점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인간중심간호 역량 수준은 전공에 대해 만족한 학생이 전공에 대해 불만인 학생에 비해 높았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대인관계능력은 인간중심간호 역량 수준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영향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학년이었으며, 이중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비판적 사고성향과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내외 프로그램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연구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대인관계능력이 인간중심간호 역량 영향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9년도 중부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REFERENCES

- [1] A. Kitson, A. Marshall, K. Bassett & K. Zeitz. (2013). What are the Core Elements of Patient-Centered Care? A Narrative Review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from Health Policy, Medicine and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9(1), 4-15.
DOI : 10.1111/J.1365-2648.2012.06064.
- [2] S. Morgan & L. H. Yoder. (2012). A Concept Analysis of Person-Centered Care. *Journal of Holistic Nursing*, 30(1), 6-15.
DOI : 10.1177/0898010111412189.
- [3] P. Tremayne. (2014). Using Humour to Enhance the Nurse-Patient Relationship. *Nursing Standard*. 28(30), 37-40.
DOI : 10.7748/Ns2014.03.28.30.37.E8412
- [4] J. Y. Kang & E. J. Shin.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Centered Nursing and Family Satisfaction in ICU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12(3), 1-12.
DOI : 10.34250/Jkccn.2019.12.3.1
- [5] J. Y. Kang & Y. M. Lim.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Environment and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for Intensive Care Nurse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12(2), 73-84.
DOI : 10.34250/jkccn.2019.12.2.73
- [6] E. H. Park. (2018). *Factor Related to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Master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7] B. McCormack & T. Mccance. (2016). *Person-Centered Practice in Nursing and Health Care: Theory and Practice* : Wiley-Blackwell.
- [8] S. M. Moon. (1980).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2), 195-204.
- [9] J. K. Kim & M. J. Kim. (2011). A Review of Research on Hospital Nurses' Turnover Intention.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7(4), 538-550.
- [10] H. J. Yang. (2013).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 Society*, 14(12), 6387-6394.
DOI : 10.5762/Kais.2013.14.12.6387
- [11] K. Y. Kim & E. J. Lee. (2016). The Relationship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cess Competency and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in Nurses Working in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2), 451-461.
DOI : 10.7465/Jkdi.2016.27.2.451
- [12] M. J. Annette, C. Angela, M. Philip & K. Jennifer. (2013).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Patient-Centered Care in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3(12), 116-124.
DOI : 10.5430/Jnep.V3N12P116
- [13] E. Y. Yoo. (2019).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erson-Centered Nursing Educational Program for Clinical Nurses*. Doctoral Dissertation, Daegu Catholic University.
- [14] N. S. Ha, S. Y. Park & M. J. Lee. (2015). A Literature Review (1996-2014) Critical Thinking in Korean Nursing Education for the Era of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9), 341-349.
DOI : 10.14400/JDC.2015.13.9.341
- [15] S. B. Kim & Y. R. Park. (2019). Factors Associated with Person-Centered Care for Elderly in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31(6), 618-627.
DOI : 10.7475/Kjan.2019.31.6.618
- [16] E. M. Kim & J. H. Shin. (2020). Factors Influencing Patient-Centered Care by Nursing Staff in Nursing Hom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2(1), 10-21.
DOI : 10.17079/Jkgn.2020.22.1.10
- [17]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18] J. Yoon.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 [19] B. G. Gurney. (1977).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20] R. I. Suhonen, M. L. Gustafsson, J. Katajisto M. Välimäki & H. Leino-Kilpi. (2010). Individualized Care Scale-Nurse Version: A Finnish Validation Study. *Journal of Evaluation of Clinical Practice*. 16(1), 145-54.
DOI : 10.1111/J.1365-2753.2009.01168
- [21] J. Y. Kim. (2020). Critical Thinking and Caring According to Gender Role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5), 961-975.
DOI : 10.22251/jlcci.2020.20.5.961
- [22] Y. K. Yang. (2018). Influences of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25(2), 99-108.
DOI : 10.7739/Jkafn.2018.25.2.99
- [23] E. J. Lim & Y. J. Yi. (2014). Comparison of Operating Room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on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within the Medical Team.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3), 314-322.
DOI : 10.11111/Jkana.2014.20.3.313
- [24] M. O. Chae. (2016).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95-103.

DOI : 10.5762/KAIS.2016.17.5.95

- [25] J. O. Chung & S. Kim. (2019). The Effect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3), 344-356.

DOI : 10.5977/jkasne.2019.25.3.344

- [26] M. J. Jo. (2016).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2), 182-190.

DOI : 10.5977/jkasne.2016.22.2.182

- [27] S. K. Chaung.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1), 71-78.

- [28] M. K. Kim & H. W. Kim. (2019). The Effects of Jigsaw Cooperation Learning o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oper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4), 508-516.

DOI : 10.5977/jkasne.2019.25.4.508

- [29] Y. A. Song (2020). Effects of Integrative Simulation Practice on Nursing Knowledge, Critical Thinking, Problem-Solving Ability, and Immersion in Problem-Based Learning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6(1), 61-71.

DOI : 10.4069/kjwhn.2020.03.15.1

- [30] E. J. Lim & M. H. Lim. (2019). Convergence Relationship among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Stress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5), 279-286.

DOI : 10.14400/JDC.2019.17.5.279

- [31] M. J. Koo & N. Kim.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Hospital Communication (Hospital Adaptation) Program for New Graduate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8(4), 1-12.

DOI :10.12811/kshsm.2014.8.4.001

임미혜(Mil-Hye Lim)

[정회원]



- 1985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1년 8월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0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3월 ~ 2015년 1월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5년 2월 ~ 현재: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건강증진
- E-Mail : 12veronica@joongbu.ac.kr